

민주 최고위원 보선 ‘명청대전’ 서막 올랐다

대진표 확정...5인 5색 '진검 승부'

23일 합동연설회...내달 11일 선출

친청 vs 친명 격돌 1인2표제 변수

地選 앞 당내 권력 지형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완성할 최고위원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후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친청(친청정래)계'와 '비당권파(친이재명계)' 간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권력 지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청래 리더십 수성 vs 비당권파 견제

이번 보궐선거는 이달 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빈자리(3석)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친청계(당권파)는 문정복·이성운 의원, 비당권파(친명계)는 이진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지역위원장(부산 수영구)으로 구분된다.

친청계 후보들은 '민주당 원팀'과 '정청래 체제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특히 문정복 후보는 최근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을 공약하며 당원 중심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성운 후보는 검찰 개혁의 완성을 통한 '내란 청산'을 앞세워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을 정조준하며 '당·대통령실 간의 일사불란한 협력'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진태 후보

는 '명통(明通)'을 자임하고 있으며, 강득구 후보는 당정 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유동철 후보는 혁신회의 등 외곽 조직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세 확산에 나섰다.

◇'1인 2표제'·'중앙위원 표심'이 승부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2인 연기명(1인 2표제)' 투표 방식을 꼽는다. 유권자가 후보 2명을 선택해야 하는 특성상, 계파별로 전략적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조직표로 분류되는 중앙위원(50%)과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권리당원(50%)의 비중이 대등하게 설정된 점도 관전 포인트다.

정 대표가 최근 중앙위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비당권파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친청계가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대표의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과 맞물려 여론의 지지충도 분화하고 있는 만큼 실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측에서 임오경 의원까지 애초 3명의 이름이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2명만 나온 것도 '1인 2표제' 투표 방식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3차례 토론회 후 내달 9-11일 투표

후보들은 오는 23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의 토론회를 거친다. 이후 내년 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투표를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월1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 당직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재신임을 받느냐, 아니면 견제 세력의 부상으로 당내 역학 관계가 재편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는 값지지만 방법론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 투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민주당 地選기획단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승리를 위한 후보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에 정치권 화답

주철현·정진욱·박균택 ‘역사적 결단’

“대통령 결단·지자체 상생 의지 성과”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 합의 소식에 지역 정치권이 뜨겁게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정진욱(광주 동남갑)·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8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를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전기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단순한 공항 이전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갈등을 끊고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

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김산 무안군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전남의 미래 지도를 바꿀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신속히 개정돼 사업의 실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에서 찾았다.

정 의원은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숙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정면 돌파하며 해결의 계도를 올려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항 이전과 연계한 공항도시 조성, 첨단산업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이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제는 실행의 단계

가 중요하다. 후보지 선정과 재원 마련 등 후속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입법·예산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항 이전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했던 박균택 의원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번 합의에 ▲1조원 규모 무안군 지원 ▲첨단산업·국가산단 조성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 검토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에 맞춘 국내선 이전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2심부터 적용...무작위 배당 지정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에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조계원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해야”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 의원을 포함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구체적인 ‘사법 쿠데타’ 사례로 지난 5월1일 대법원 판결을 지목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초유의 사법 쿠데타이며, 그 정점에 조희대 대



법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지극언 부장판사는 시간 계산까지 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주요 내란동조 혐의자인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조 의원은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사법부가 훼손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수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

CMYK